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0.(화) 11:00 / 2026.11.11.(수) 조간 배포 2026.11.10.(화) 6:00

농업과 기업의 상생,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본격 시동

-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식 및 사회적가치페스타 등 거쳐, 상생협력 확산 본격화
- 단년도 지원 한계 극복, 최대 3년·연 5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형 다년도 지원 체계’로 개편…11월 13일부터 접수 시작

농업과 식품·외식 기업이 손을 잡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의 고유 자원과 기업의 창의적인 기술·아이디어·유통망을 결합하는 민간 주도형 협력 모델이다. 이를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와 미래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출범식에서 사회적가치페스타까지… 농업·기업·지역의 상생 가능성 증명

그간 농식품부는 농업과 기업 간의 협력 활동을 넓히며 소비자가 상생 제품 구매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7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식을 시작으로 농업계·경제계와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했으며, 9월 개최된 '2026년 사회적가치페스타'에서는 홍보관을 운영해 우수 모델을 널리 알렸다. 또한, 추석 명절에는 국산 농산물을 담은 '모두의 상생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장에서는 이미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상생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태안 대파와 부여 연잎·밤 등을 기업급식 메뉴로 개발해 지역 농산물과 직장인의 건강한 식탁을 연결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지역 양조장의 원주에 감각적인 브랜딩과 글로벌 유통망을 접목해 전통주 신시장 개척의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제주 청년기업 귤메달은 유니클로, CU, 배민 B마트 등과 협업하여 감귤을 패션 콘텐츠와 디저트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아울러, 한울농업회사법인은 고구마, 가루쌀 등의 제품 다각화와 판로 확대를 적극 추진한 결과, 국산 농산물 구매액을 2023년 18억 원에서 2025년 58억 원으로 대폭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2027년 지원사업 개편·공모, 최대 3년간 연 5억 원 규모로 맞춤형 지원

농식품부는 이러한 민간 중심의 우수 상생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13일(금)부터 2027년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지원 대상 공모를 시작한다. 기존의 개별·단발성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과제 중심의 '프로젝트형 다년도 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는 기업, 생산자·유통조직, 연구기관 등이 지방정부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 목적에 맞춘 다양한 유형*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 유형(예시) : 생산중심형, 제품화형, 전주기 통합형, 대·중소 협력형, 마케팅·수출형 등

선정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는 연간 최대 5억 원 규모(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 자부담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내용* 역시 현장의 수요에 맞춰 폭넓게 개방되어 있다.

* 지원내용(예시) : 시험재배, 품질관리, 원료 적합성 검증, 제품·메뉴 개발, 시험생산, 시장조사,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수출 등

특히, 단년도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대 3년의 다년도 계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재배 및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년도 사업은 매년 성과 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 및 규모 조정 등 결정

□ 신청 자격 및 접수 일정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기업, 농가, 유통조직, 연구기관 및 지방정부)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대표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8일(화) 오후 6시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시·도의 검토·추천을 거쳐 12월 15일(화) 오후 6시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최종 접수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는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과, 안정적인 판로 개척이 절실한 농가 모두에게 확실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되는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장기적 거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27년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공모 개요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미선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박다움 (044-201-21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7년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공모 개요

□ **(사업 목적)** 국산 농산물 활용 확대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협력 모델 발굴·확산

□ **(참여 대상)** 주관사업자 1개와 대표 시·도 1개가 필수 참여하는 컨소시엄

○ 그 외에 기업·생산자단체·유통·물류조직·연구기관 등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참여기관'으로 자율적으로 참여

□ **(지원 규모)** 프로젝트당 연간 국비 최대 2억원, 총사업비 최대 5억원

※ 국비 40%·지방비 40%·자부담 20%. 최종 지원규모는 예산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1년 또는 다년도(2~3년)

※ 다년도 사업은 매년 성과·집행실적·연차계획을 심의하여 계속지원 여부와 규모 결정

□ **(지원 내용)** 시험재배·생산 및 품질관리, 선별·저장·운송 관련 임차·사용, 제품·메뉴 개발, 시험생산, 시장조사, 판로개척 등 공동 협력활동

※ 원료구매대금,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통상 운영비 등은 지원 제외

□ **(신청 일정)** 2026.11.13.(금)~12.15.(화)

○ 주관사업자 → 대표 시·도: 2026.12.8.(화) 18:00까지

○ 대표 시·도 → aT: 2026.12.15.(화) 18:00까지

* 동 일정은 최종 공고문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및 문의)** 시·도 검토·추천 → aT 서류점검 → 전문가 평가·사업비 심의 → 농식품부 확정

○ 공고 확인: 농식품부(www.mafra.go.kr), aT(www.atfis.or.kr)

○ 문의: aT 식품기업지원부 061-931-0721